



최근 민간투자자들의 아프리카 식량사업 진출 현황

최근 들어 민간투자자들이 식품가격 상승 등을 배경으로 원가절감 및 수익성 제고, 투자기회 확보 등을 위해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이러한 식량사업 진출은 고수익 달성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신중한 사업전략 수립 및 적정프로젝트 발굴이 요구됨.

- 최근 들어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민간 투자자들 중심의 아프리카 식량사업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음.
 - 지난 수년간 상업은행과 자선단체, 각국 정부 등이 아프리카 사유농장이나 식량 프로젝트에 투자할 목적으로 수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설립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민간 기업들이 현지투자를 확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해 360억 달러에 달한 아프리카 외국인직접투자액의 대부분은 동 대륙의 광물자원(석유·구리·다이아몬드 등) 개발에 투입되었고 농업투자는 상대적으로 아직 미미한 상황이나 추세적으로는 증가일로에 있음.
- 민간투자자들은 각종 여건의 변화들이 아프리카 식량사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무엇보다 아프리카에는 광범위한 유향 농경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난 2001년 이후 빈민국의 유럽연합(EU)시장 수출농산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음.
 - 특히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농산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원가부담이 가중되면서 민간기업들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현지생산 확대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음.
- 현재 국제연합(UN)이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등 빈민국 기아퇴치를 목적으로 약 300억 달러 상당의 공적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추세는 긍정적인 현상이나 아프리카 진출에 있어서는 수익성 이외 다양한 과제들이 상존함.
 - 근본적인 기아퇴치 및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지원이나 장려금보다는 정부 차원에서의 개선노력 및 법률정비, 사업원리에 충실한 농민 양성 등 보다 중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상기 장애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로 아프리카 대륙으로의 자본유입이 확대일로에 있음.

- 주류업체인 네덜란드의 하이네켄(Heineken)과 영국의 디아지오(Diageo)는 원료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아프리카 양조시설의 제조법을 변경하여 그동안 사용해왔던 수입보리를 현지생산이 가능한 수수로 대체하였으며, 특히 전자의 경우 시에라리온에서 현지 농민들을 위한 15만 달러의 대출보증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동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Rabobank Group은 최근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식량사업 투자를 목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프랑스 은행인 BNP Paribas와 Cr dit Agricole 등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는 수억 내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적펀드를 조성하여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민간기업들에 대해 저리융자 및 보조금 등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펀드들도 자금조성을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식량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싱가포르 소재 견과 및 곡물류 생산업체인 Olam International은 나이지리아 등에서 쌀 제분소에 3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등 지난해 아프리카 23개국 대상 직접투자액을 2배로 증액하여 연간매출액(40억 달러)의 약 30%를 아프리카에서 올리고 있음.

〈표〉 아프리카 식량사업 대표적 투자 사례

진출기관	국 적	투자형태	사업현황
Olam International	싱가포르	직접투자	지난해 쌀 등 식량사업 2억 달러 투자
Rabobank Group		대 출	7,5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자금 조성
Emergent Asset Management	영 국	민간펀드	민간투자자들에 대해 사하라 이남에 위치한 13개국 농지 매입 권유
Durabilis	벨 기 에	민간펀드	1,500만 달러의 자금조성을 바탕으로 세네갈에서의 과일 및 견과류 수출 등 아프리카 4개국에서 식량사업 지원
Africa Enterprise Challenge	케냐	민간펀드	1억 달러의 자금조성으로 농업사업에 대한 지분 매입 권유

■ 아프리카 식량사업 진출은 고수익 달성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사업전략 수립 및 적정프로젝트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오랜 기간 아프리카의 농업은 절대적인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크게 피해를져 있기 때문에 꾸준한 투자설비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FAO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기구 주도의 민간투자자와 아프리카 실업가들 간의 연계기반 구축, 모종 · 관개 · 비료 등 지원, 중장기적인 영농과 학화 추진 등이 긴요한 상황임. **KIF**